

트럼프 “우리가 베네수 맡고 있다…처신 잘못하면 2차 공격”

“베네수 선거前 국가재건이 먼저…현지 美대사관 재개관 생각중”

콜롬비아 상대 군사행동 가능성 시사…“쿠바는 그냥 뒤도 무너질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암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 인사들이 이끄는 현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지금은 대선을 통한 새 정부 출범보다 베네수엘라의 기반 시설 재건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작년 연말부터 체류해온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 기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답하겠지만 매우 논란이 커질 것”이라면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We are in charge)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

행직을 수행하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대화했나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도 “그녀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대사관을 다시 열겠나는 질문에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단기에 치르라고 요구하겠나는 질문에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면서 석유회사들의 투자 등을 통해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

라가 엄망”이라면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선

거를 치르겠지만 망가진 나라를 복구하는 게 주

된 시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납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나쁜 용어가 아니다”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애권 인사 귀국과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겠나는 질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석유와 베네수엘라 재건에 필요한 것 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 매장된 석유 자원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처신을 잘하지 않으면 우

리는 2차 공습을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마약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마두로 대통

령과 관련해 어떤 결론(endgame)을 구상하나는 질문에는 “엔드게임이란 없다. 묵묵히 재판을 진행할 뿐”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에 전임 행정부가 중동에서 시도한 정권교체와 국가건설을 비판했다는 지적에 “그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였다”면서 “이건 베네수엘라다. 우리 지역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영구적인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답하겠나는 질문에 “나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열광하고 있다. 그들은 ‘이걸 위해 투표했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 문제가 있는 중남미의 다른 국가 콜롬비아를 상대로도 군사 작전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콜롬비아도 아주 병든 나라다. 코카인

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는데 그는 아주 오래 그려지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콜롬비아에서도 작전을 할 거나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쿠바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가 지원하던 자금이 끊겼다면서 “난 쿠바가 그냥 무너질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멕시코가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클라우디아 세인 바움 대통령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불행하게도 멕시코에서 카르텔은 매우 강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케데현’, 美크리틱스초이스 애니메이션상·주제가상 2관왕

‘오징어 게임’ TV 부문 외국어시리즈상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현)가 북미 비평가 단체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시즌3으로 TV 부문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현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바카랭거에서 열린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아르코’ 등을 누르고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사운드트랙 ‘골든’으로 주제가상도 거머쥐었다.

케데현은 특히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와 퍼사 스튜디오의 ‘주토피아 2’, ‘엘리오’ 같은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면서 오는 3월 열리는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オス카상) 수상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주제가상이 먼저 발표된 뒤 상을 받으려 무대에 오른 ‘골든’의 가수이자 작곡가 이재는 벽찬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 노래는 (주인공 캐릭터) ‘루미’가 일어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표현이어야 했다”며 “여러모로 그것은 내게도 같은 의미였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케데현이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작



4일(현지시간)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에서 애니메이션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는 매기 강 감독.

/REUTERS=연합뉴스

으로도 잇달아 호명되자 제작진과 이병헌 등 목소리 배우들, 사운드트랙을 부른 가수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매기 강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이 영화의 여정은 7년 전, 한국 문화에 대한 내 개인적인 러브레터이자, 음악의 힘, 그리고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과 내면의 진짜 모습을 조화시키려 애쓰

는 모든 이들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이 영화를 발견하고 처음부터 응원해준 팬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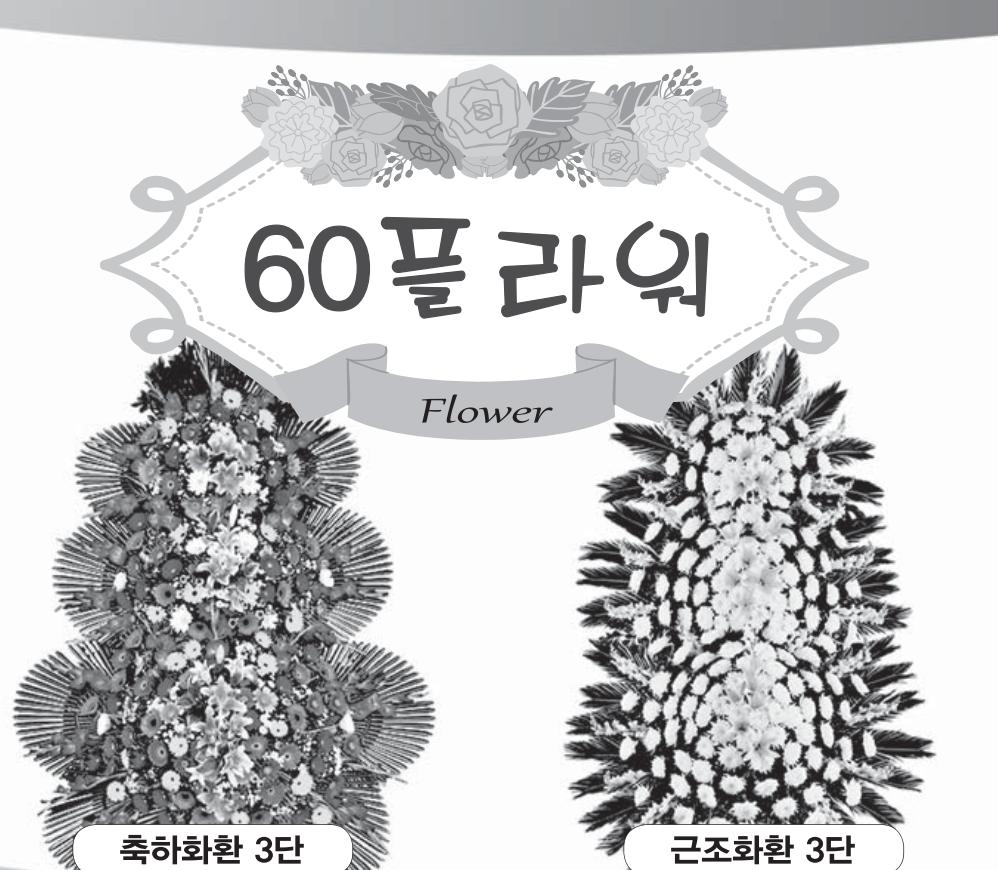
크리틱스초이스협회(CCA)는 미국과 캐나다의 방송·영화 비평가와 기자 600여명이 소속된 단체로, 이들이 매년 초 여는 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서는 영화와 TV 부문으로 나눠 우

수한 작품과 배우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오징어 게임’은 이날 시상식에서 경쟁작 ‘아카풀코’, ‘라스트 사무라이 스탠딩’ 등을 제치고 TV 부문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을 세 번째로 수상했다.

이 시상식의 TV 부문에서는 시즌 구분 없이 후보 및 수상 작품명만 공개한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부수 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